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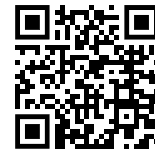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평화를 만듭니다

요한복음 4:3-42

1. 마음 열기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상황에서 1년이 연기된 끝에 열리게 된 하계 올림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보여 준 열정과 땀은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겁고 뭉클해지는 시간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문득 33년 전인 1988년 한국에서 개최된 ‘1988 서울 올림픽’을 떠올려 봅니다. 다음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공식 주제가 ‘손에 손 잡고’(Hand in Hand)의 동영상(링크 또는 QR 코드 참조)과 가사입니다.

링크: [Koreana - Hand in Hand | Opening Ceremony Seoul 1988 | Music Monday - YouTube](#)



한글 가사	영문 가사
<p>1.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 잡고</p> <p>2.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p>	<p>1. See the fire in the sky We feel the beating of our hearts together This is our time to rise above We know the chance is here to live forever For all time Hand in Hand we stand all across the land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Arirang</p> <p>2. Everytime we give it all We feel the flame eternally inside us Lift our hands up to the sky The morning calm helps us to live in harmony For all time</p>

<p>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 잡고</p>	<p>Hand in hand we stand all across the road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o live Hand in Hand we can start to understand Breaking down the walls That come between us for all time Arirang</p>
<p>잘 알려진 대로, 냉전으로 인해서 각각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열렸던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 이후, 냉전 종식을 상징이라도 하듯 ‘1988 서울 올림픽’은 소위 ‘동서 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평화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p>	

2021년 여름에 개최되었던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순간들에 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3년 전인 1988년에는 한국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서울 올림픽은 냉전으로 인해서 각각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열렸던 ‘1980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 LA 올림픽’ 이후에 냉전 종식을 상징하더라도 하듯 동서 진영을 포함하여 당시 IOC 회원국 가운데 대부분인 160개국에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즉 이념과 사상의 갈등을 잠시 접어둔 채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링크를 통해 볼 동영상(4분 13초 분량)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주제가 ‘손에 손 잡고’(Hand in Hand)를 부르는 개막식 장면입니다. 가사에 집중하여 주제를 함께 들어본 후,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 **마음을 여는 토의**

(1) 오늘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상황이든, 모든 것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2)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평화로운 공생과 협력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정반대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평화로운 공생과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생각 쌓기

‘생각 쌓기’에서는 ‘마음 열기’의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나눈 다양한 생각들을 더 심화시켜 봅니다.

☞ 시간 조절을 위해 위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된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생각 쌓기’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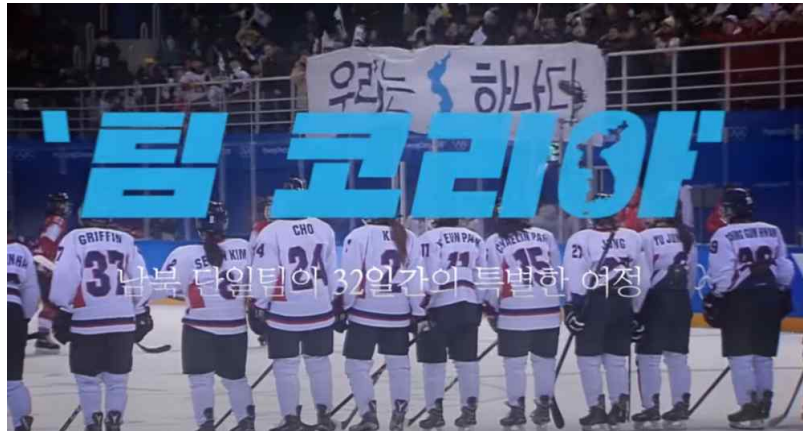
1) 평화의 자리

1988 서울 올림픽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포츠는 일체의 차이나 갈등의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단의 상황 속에 있는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체육 분야**를

통한 소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이루어 참가한 일은 이를 위한 좋은 선례입니다.

'1988 서울 올림픽'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스포츠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년 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1991년 탁구 남북 단일팀 이후 27년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찬반 논쟁도 뜨거웠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아래의 동영상(링크 또는 QR 코드 참조)이 그 당시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링크: <https://youtu.be/4163oPn8xS8>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요청해 왔던 우리 정부는 이에 바로 화답하였고, 1월 9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담 초기만 해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자체가 주된 논의사항이었고, 단일팀 구성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12일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단일팀 구성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역시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의 피해 및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찬반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결국 남과 북은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을 내보내기로 합의하였고, 1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와 남북 올림픽위원회의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참가자 증원에 대한 한국의 요청도 받아들여져서 12명의 북한 선수들이 단일팀 명단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단일팀 감독직은 한국 감독이 수행하지만 매 경기 최소 3명의 북한 선수들이 출전해야 한다는 등의 주요 사항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1월 25일에 북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단일팀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선 3연전, 순위 결정전과 7-8위 결정전에서 모두 패배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단일팀의 성적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사실, 같은 조에 편성된 팀들이 모두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강호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정

말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념적 배경과 그 밖의 모든 차이를 접어놓고 32일간 남과 북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4분 4초 분량의 동영상은 이때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올림픽 기간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꾸리기 위해 꾸준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르네 파셀(René Fasel)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회장의 말이 주목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 결성은 남과 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승패를 떠나 올림픽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반가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자리는 곧 화해와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미워하는 마음, 나와는 다른 생각의 차이와 득실을 계산하는 태도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때 평화의 자리도 시작됩니다.

체육 분야 외에 **남북 경제협력**(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외에 각종 대북 투자 및 협력사업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예: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역사, 언어, 농업 등의 공동 학술활동**(예: 2018년 강원대학교와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사이에서 농림과 축산 분야에 대해 맺은 업무 협약)도 소통과 공감의 장벽을 넘어서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쌓을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입니다.

2) 분쟁과 다툼의 원인

이번에는 정반대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쌓아 가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국의 이익, 민족/인종과 종교의 차이, 이념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대개 이러한 원인적 요소들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은 아니지만,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민족/인종 청소’(ethnic cleansing)를 동반한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군사 쿠데타로 인한 혼란의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원인은 대표적으로 **자국의 이익**(예: 제2차 세계대전이나 제1차 걸프전쟁), **민족/인종과 종교의 차이**(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또는 주변 아랍국들] 사이의 갈등), **이념의 차이**(예: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진행된 동서 진영의 냉전)입니다. 그 외에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전쟁과 다름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위 ‘민족/인종 청소’(ethnic cleansing)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민족 청소’는 특정 이방인 또는 적대적인 민족을 배제하고 말살함으로써 그 민족 또는 인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일컫는 말로서, 강제 이주와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부터 9년 가까이 지속된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1999년) 그리고 2016년에 시작되어 현재에도 진행 중인 ‘미얀마의 로힝야족 박해’(Rohingya Persecution in Myanmar)를 들 수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 계열의 소수민족으로서, 이들에 대한 박해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다수의 사상자는 물론이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탄압으로는 25,000명의 사망자와 18,000명의 성폭행 피해자 그리고 75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낸 2017년 8월 25일의 학살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총책임자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이었는데, 바로 그가 지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군부는 쿠데타 감행의 이유로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축소에 대한 군부의 우려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이로써 유

엔(UN)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았다고 하는 로힝야족에 대한 지속적인 학살 및 ‘민족 청소’ 외에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부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체포됨으로써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가장 최근의 큰 탄압은 2016년 10월 6일에 군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25,000명의 사망자와 18,000명의 성폭행 피해자 그리고 75만 명의 난민을 만들었던 2017년 8월 25일의 학살 사태(국제앰네스티 온타리오국제개발기구[OIDA]의 자료 참조)는 그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민족 청소’는 2015년에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문민정부를 세운 후에도 계속되었고, 실제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도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박해를 방관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군부가 지난 2월 1일에 일으킨 쿠데타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치, 대통령 윈 민(Win Myint)과 여당 지도자들이 축출되어 가택 연금되고 권력이 군부의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게 이양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는 2017년 학살 사태 당시 총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쿠데타 감행의 이유로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축소에 대한 군부의 우려를 실질적인 원인이라 설명합니다.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1과 참조)과 상호 인정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2과 참조)을 망각할 때, 그리고 이 망각의 상태가 한 개인을 넘어, 한 공동체를 넘어, 한 국가와 민족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확장될 때, 평화의 자리는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만이 남습니다.

미얀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과 민족 및 종교의 차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 생각을 쌓는 읽을거리 & 들을거리

- (1)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속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링크: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촛불을 들어주세요!-국제앰네스티 \(donus.org\)](https://www.donus.org/)).
- (2) 참여연대 소속 국제연대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링크: <https://www.donus.org/>).

3. 말씀 속으로: 장벽을 넘어서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나 분쟁 및 다툼의 원인들과 관련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요한복음 4장 3-42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봅시다.

☞ 본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명의 물'과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 또는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에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이 주제 범위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 유대인 vs.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본래 동족이자 한 혈통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왕(기원전 971-931년)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몇 세대가 지난 후,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기원전 884[?]-872[?]년)가 왕권 다툼에서 승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두 달란트를 주고 산 사마리아 산지에 새로운 성읍을 건설했습니다(왕상 16:24).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이름은 후에 지역 이름으로, 또 민족 이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합니다. 정복자인 앗수르는 많은 수의 피정복민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자국민들을 정복한 지역으로 옮겨 와서 살게 하였습니다(왕하 17:6, 24).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은 인종이 혼합됨으로써 다민족화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종교도 자연스럽게 혼합됩니다(왕하 17:25-41). 그러자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긴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열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587/6년 남유다까지 멸망했다가 539년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으로 유대인들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원조 제안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후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방해한 일(스 4:1-5, 24)이나 성벽 공사를 포함한 성읍 건축을 지연시킨 일(스 4:6-23)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갈등과 반목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통치: 기원전 175-164년])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금지하고 헬레니즘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의 정치 그룹들이 이를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습니다(마카베오하 6:1-3;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XII,257-264). 그래서일까요?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기원전 135/4-104년)는 그리심 산에 세워진 성전을 파괴한 후(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XIII,254-258, 267-287), 108년에는 도시를 정복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공개적인 적대감은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예수 당시까지 이어졌다고 하니(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XVIII,29-30, 85-89; XX,118-136; 마 10:5; 눅 9:52-56), 수백 년에 걸친 갈등과 분열의 역사인 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

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마주친 이야기에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요 4:9b)이라는 짧은 언급이 삽입된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속 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민족과 지역 차별의 장벽을 넘어 ‘소통’으로(3-19절과 27절)

예수님이 유대인을,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을 대표한다면, 이 이야기는 수백 년간 지속된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높고 두터운 장벽을 가운데 두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7절)는 진술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나긴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인해서 높은 장벽을 가운데 두고 서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민족 차별의 장벽’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민족에서 출발했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고도 긴 반목의 역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민족과 지역 차별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즉 사마리아인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도 유대인에게는 다 부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요 4:9a)라고 반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에게 그가 들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예 처음부터 말도 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자체도 이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해줍니다.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핏줄을 가진 한 민족으로 출발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민족화 되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를 멀리하고, 이를 넘어서 아예 배제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전통에 예수님이 제동을 거신 셈입니다. 수백 년 동안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기만 했던 장벽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2) 이념과 사상 차이의 장벽을 넘어 ‘공감’으로(20-26절)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를 놓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진행되던 대화의 주제는 20절에서 갑자기 예배와 예배 장소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21, 23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와 예배 장소의 문제에 관한 20-26절의 짧은 대화를 후대의 첨가로 볼 이유는 전혀 없지만, 맥락상 19절에서 곧바로 27절로 이동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놓여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세워진 또 하나의 장벽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념과 사상의 장벽입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스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구별되는 다른 성전이 존재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민족과 지역의 차별에 동반될 수밖에 없었던 종교적인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러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20절)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종교적인 갈등이 가져온 이념과 사상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이 21,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곳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도 산에 있는 성전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가르쳐줄 것(25절)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그리스도)다.”(26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으로 여겨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그분을 사마리아인으로 업신여기고는 했습니다(“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요 8:48]).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길고도 긴 반목의 역사 속에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9:51-56)에 의하면,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로 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시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맞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두 명의 제자이자 형제 사이인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과 주민들을 향해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제안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처럼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당위성을 책망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셨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쌓아 놓은 벽을 허무는 일 -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늘 이방인이자 나그네 취급을 받으셨지만, 아웃사이더로 계셨던 분이 중심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데에 앞장서신 것입니다.

4. 삶 속으로

1) 마음으로 생각해보기: ‘평화의 자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교댄스 댄서인 피에르 둘레인(Pierre Dulaine)은 춤이 두 민족 혹은 두 커뮤니티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매개체임을 확신하며 유대인과 아랍인 아이들이 함께 춤을 배우는 댄스교실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댄스교실은 민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춤으로 소통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서로 다른 민족과 커뮤니티에 속하던 아이들은 함께 춤을 배우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Dancing in Jaffa’(2013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링크 또는 QR 코드 참조).

링크: [Tribeca FF \(2013\) - Dancing In Jaffa Official Trailer #1 HD - YouTube](#)



위의 링크는 다큐 영화가 아니라 3분 55초 분량의 공식 예고편(Official Trailer)입니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영화 전체를 함께 시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국가/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지역 또는 이념/사상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로운 공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봅니다.



●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축제는 소통과 공감을 넘어서 교류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의 자리입니다. 들레인의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외에 경제, 문화, 학술 분야 등도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동서 진영의 화합의 장이 되었던 1988 서울 올림픽이나 극적으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던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확인했듯이, 체육 분야는 소통과 공감을 넘어서 교류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학술 분야 등도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노력과 시도들을 간략히 소개해주고(2. 생각 쌓기 1) 평화의 자리[지도자용] 참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누어봅시다.

2) 마음으로 행동하기: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한국 사람이 아니면서도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에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투입됨으로써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기억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우리 정부는 22개국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진단 키트, 방역 물품 등을 담은 '생존 박스'를 선물함으로써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에티오피아의 강뉴(Kangnew=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부대 출신의 참전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에서 9,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낯선 나라로 파병되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1974년 군부의 쿠

테타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그들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도 퇴출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1991년에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세인 생존자 132명(2020. 5. 기준)과 그들의 가족에게 마스크 4만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p>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마스크 전달...“희생에 감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연합뉴스TV 2020년 5월 21일[8분 59초 분량])</p>	<p>6.25 특집다큐 영웅의 귀환 에티오피아 강능부대 E01 170624 720p NEXT - YouTube (6·25 특집 다큐 “영웅의 귀환” 에티오피아 강능부대, 2017년 6월 24일 KBS 방영[48분 50초 분량])</p>
	

오늘날에도 분쟁과 고통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과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예: 국경없는의사회)이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예: 국제엠네스티)입니다.

● 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보면 어떨까요?

(링크: 후원 | 국경없는의사회 (msf.or.kr) 또는 <https://amnesty.or.kr/donation/#pledge>)

(1)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 MSF)의 활동

이 단체는 1971년 12월 20일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슈네르 등 청년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전쟁에서 국제 적십자사 활동을 하다가 분리되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1996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9년에는 당시 회장이었던 제임스 오빈스키(James Orbinski) 박사가 국경없는의사회 대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과 신념은 아래의 ‘헌장’에 잘 나타납니다.

① 국경없는의사회는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인재 혹은 무력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돕는다.

② 국경없는의사회는 보편적인 의료 윤리를 따르며, 누구나 인도주의적 구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③ 구성원들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을 유지한다.

④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과 부담을 인지하고,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2)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활동

이 단체는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국인 페터 베넨슨(Peter Benenson), 에릭 베이커(Eric Baker), 루이스 쿠트너(Luis Kutner)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입니다. 철조망에 둘러싸인 촛불 모양의 로고는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류연대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형 폐지, 난민 보호, 국제 사법 정의 실천, 소년병 동원 반대, 여성 폭력 추방, 무기 거래 통제, 양심수 등에 대한 인권 옹호, 기후 대응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에서는 한 예로 2005년 10월 28일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종군 위안부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① 보편적: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한다.
- ② 민주적: 앰네스티는 어느 곳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 세계 회원들의 의사를 따른다.
- ③ 국제운동: 세계 160여 개국과 80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3) 마음으로 소원하기: ‘남과 북의 평화’

정전(停戰), 휴전(休戰), 종전(終戰)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4116>

먼저, 정전(停戰), 휴전(休戰), 종전(終戰)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 함께 시청합니다(3분 50초 분량).

① **정전(停戰):** 전투 중인 나라들이 합의하여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서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현재에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② **휴전(休戰):**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가리킵니다.

③ **종전(終戰):**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을 말합니다.

남과 북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8년만에 전쟁이 종식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전 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 표명이라면, 평화협정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맺는 합의 문서입니다.

● 정전협정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작은 힘을 보태보면 어떨까요?

<p>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p> <p>전 세계 1억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p> <p>링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p>	
--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일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직접 서명해봅니다.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혹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상호 인정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그리고 이를 소통과 공감으로 드러낼 때 평화는 개인과 개인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를 넘어, 국가/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평화’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

기회가 된다면 ‘국가/민족과 국가/민족의 평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볼 수 있습니다.

☞ 단,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이 될 수 있으므로 지도자가 토론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 무기와 같은 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가?

지난 9월 15일,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사일 제작 기술의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 군비 증강과 최첨단 무기 생산 경쟁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를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무기의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팍스 로마나)는 로마제국이 약 200-250년간 몇몇 저항운동이나 시민전쟁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기원후 14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Pax Augusta)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9년에 평화의 여신 ‘팍스’(Pax)를 위한 국가 제의가 제단(Ara Pacis)의 봉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제단’은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라는 주도적 모티프와 연결되는 평화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국가적 제의는 실제로 통치 이데올로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평화에 대한 기대를 정치적으로 선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의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평화의 여신이 아니라 황제였고,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위한 국가 제의의 설립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평화(Pax)를 도구화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평화가 실제로 수많은 정복 전쟁과 권력 다툼의 결과로 이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약성경이 폭력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에 대한 참된 대안으로서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의 평화’를 제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입니다 (눅 1:78-79; 2:14).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봅니다.